

## 제 60 강

# 교회의 일치와 사역의 다양성

■ 성경본문 에베소서 1:1-6:24 ■

### 프렐류드(Prelude)



바울의 전도 여행

오늘 우리는 주후 60-61년경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이 설립하고 가장 아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와 구원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감옥에서 쓴 편지

라는 이유에서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이 네 옥중서신은 장소와 시기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의 관련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사역론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빌립보서는 교회실천을, 빌레몬은 개인 생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후 60년 혹은 61년경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간 구금되어있는 동안 임대 주택에서 거하고(행 28:16, 30), 많은 사람의 방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행 28:23).

그중에는 에베소에서 온 두기고(엡 6:21),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빌 4:18), 골로새에서 온 오네시모(골 4:7-9; 몬 1장)가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의 성도

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했으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오네시모는 콜로새의 성도들과 빌레몬에게 각각 바울의 서신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교회론

-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1장),
- (2)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2장),
- (3) 비밀로서의 교회(3장)를 논하고

#### 2. 실천적인 생활

- (1) 한 몸, 다양한 부르심(4장),
- (2)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5장),
- (3) 선한 싸움(6장)

## I. 주요 내용

-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에베소서 1:1-2:22)
- 2. 교회의 통일성과 사역의 다양성(에베소서 4:1-16)
- 3. 빛의 자녀와 신앙의 무장(에베소서 5:6-21, 6:10-20)

## II. 시대적 배경

바울은 제 2차 세계전도 여행 시에는 에베소를 잠시 들렀으나(행 18:19-21), 제 3차 전도여행 때는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행 19:1-8).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상업과 산업이 번창하고 동방무역의 중심이 되는 항구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으며(행 19:27), 그곳 대다수의 교인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행 18:19, 19:8).

특별히 아르테미스 여신 제사와 헬라 문화의 화려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일성과 교회의 일치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을 교육하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여정을 ‘선한 싸움’이라 불렀으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1)고 독려하였습니다. 전신 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였습니다.

#### 〈연대표〉

에베소서 기록  
(주후 61 혹은 62)

### III. 말씀과 해석

####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에베소서 1:1-2:22)

바울은 화려한 이방 문화와 세계도시의 풍요를 살고 있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우주 구원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엡 1:20-21).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사라지고(엡 2:19),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우주론적 교회론입니다(엡 1:23).

#### 2. 교회의 통일성과 사역의 다양성(에베소서 4:1-16)

십자가의 죽으심과 화목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엡 2:16)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적 공동체입니다(엡 4:2-3). 그러나 이 한 몸에는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 다양한 부르심-소명이 있었습니다(엡 4:7).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apostle)로, 어떤 이는 ‘선지자’(prophet)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evangelist)로, 어떤 이는 ‘목사’(pastor)와 ‘교사’(teacher)로 삼으셨습니다(엡 4:11).

바울은 한 몸과 많은 지체로 비유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하나와 다양성’의 교회론을 에베소서에서는 더 확실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부르심의 분량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받들고 섬기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도록 협력하기 위함입니다(엡 4:13).

그리고 이 부르심은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엡 4:12) 소명입니다. 신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엡 4:12) 사역입니다. 모든 신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셋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엡 4:12) 사역입니다. 세계를 변화하는 선교와 섬김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역입니다.

### 3. 빛의 자녀와 신앙의 무장(에베소서 5:6-21, 6:10-20)

그러나 바울은 당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할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장은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1) 빛의 열매 (2) 세월을 아끼 (3) 주님의 뜻 분별 (4)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5)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6) 범사에 감사하며 (7)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엡 5장).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무장이라 불렀습니다. 신앙의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鎧),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엡 6:13-17).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마의 권세를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모든 악마와 세상 모든 권력을 소멸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 IV. 성찰과 나눔

1. 바울은 자기가 친히 세우고 또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어김없이 스며드는 유대주의자들과 이단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앞에 두고 에베소 교회를 강력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야 할 사명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바울은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우주성을 내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하신 구세주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우주성을 교회의 일치-하나 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The Oneness를, 교회의 통일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분열되고 찢어진 오늘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3. 그러나 바울의 천재성은 그다음, 그리스도의 한 몸은 ‘다양성’(many, diversity)을 동반하는 몸이라는 역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획일성’(uniformity), 독재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은 모든 신자 하나하나가 각기 받은 ‘은사’(talent)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때 생겨나는 역동성입니다. 이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때 교회는 공동체로 태어나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는 상하 계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소명입니다.

에베소의 이 사상은 교회론과 사역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심지어 정치-사회학이 조직론(system theory)에도 큰 의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동체 창조’ ‘조직의 역동성’, ‘구성원 모두의 참여’하는 역학이 살아있습니다.

하나 속의 많은 것(The One in many), 많은 것의 하나(many in One)라는 바울의 비밀을 두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조직, 우리 교회 교회학을 생각해 봅니다.